

대림 제1주일
(순정이 창간 7주년)

기독교서 P. 209 C해

제1독서(예레미 33, 14-16)
제2독서(테살전 3, 12-4, 2)
복음(루카 21, 25-28. 34-36)

순정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강론



주님, 잠깐만!

김 순 태 신부

주님, 벌써 12월 이군요. 교회 열력은 다시 한 해가 시작되고요.

저는 한창 피어나는 젊은이랍니다. 저는 매년 성탄 시즌이 다가올때마다 마음이 설레인답니다. 경쾌한 캐틀에 맞추어 고고춤으로 긴 밤을 새우는 기분은 그만 이거든요. 또한 즐거운 추억도 되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조금 무서워요. 왜냐하면, 요즈음 기분도 인짱고 해서 죄를 죄끔 짓고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빨리 앞당기지 마세요. 제가 고백성사나 보고 난후에 와 주세요. 부탁이에요.

저는 가정 주부입니다. 세상이 스피드시대라서 그런지 갈수록 바쁘군요. 내일은 제에 참석해야 하고 모레는 학부형회의에 가야하고, 그다음 날은 친구 아들 들잔치에 가야하고... 아참, 다음 주일 미사는 또 빠지게 되겠네요. 친구 동생 결혼식이거든요. 거기는 꼭 참석해야 해요. 미안해서 어떡하죠. 꼭 일요일만 무슨 일이 생겨서 말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이번에 예비고사를 봤거든요? 사실 입시준비 때문에 성당은 잠깐 스톱 했지만, 시험에 합격하면 잘 나갈 거예요. 주님은 끝없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성당에 잠깐 안 나갔다고 낙동강 오리알은 주시지 않겠지요?

저는 냉담자로 불리우고 있답니다. 사실 좋은 이름은 못되지요. 그러나 어쩔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우선 살고나서 주님도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제 마음은 변치않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성당에 나갈날이 있겠지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밀친 잠을 것입니다. 쥐구멍에도 췌하고 해물날이 있거든요.

저는 곧 결혼을 할 나이입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큰 중대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겁을 한번 쳤지요. 다음은 조금 걸리지만요. 어떤 신자 한분이 유명한 절쟁이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갔었답니다. 그런데 음양 오행 설에 의해서 점괘가 나왔는데, 이 해를 넘기면 안된대요, 용머와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군요.

우리 모두들 부탁이에요.

주님, 잠깐만 더디 오세요? 네?

주님의 응답!!!

“아휴! 이 세대가 어떻게 될런고?”

“나 보고 주여 주여 하느님 마다 다 천국에 들지 못하거니...” “그때 그시간은 아무도 모를진저.”

(고창 천주교회 주임신부)



500여명이 200개

순정이를 펴낸지 만7년이 되었다. 그간 부족함이 컸어도 아껴주시는 여러분의 보살핌 속에서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 7·6사태 이후에 가톨릭서보 전주지사를 철폐해버린 상황이라서, 이제 순정이가 교향자매들에게 교회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홍보수단이 되고 말았으나, 한정된 지면이나 인력부족으로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해 늘 안타까울 뿐이다. 하루빨리 모자란 여건들이 채워져 명(名)과 실(實)이 같은 교구보(教區報) 구실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다시 이 대림 첫주일에 기대해 본다.

세례자 요한의 「광야의 소리」처럼 예언자(預言者)적 구실을 다해보고자 <소리>란을 시작한지 3년, 크고 작은 소리들을 질터 보았다. 반응도 가지가지였지만 격려해주는 형제들이 많았기에 더욱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순정이가 만 일곱살이 된 오늘, 이 <소리>를 교회안에 대고 외쳐 보고자 한다.

지난 평신도의 날, 교구평협 회장은 「평신도 사도직 활동 육성의 해」를 보내며 부끄러움이 앞선다고 고백하며 행동이 따라 붙는 형제애를 아쉬워 했다. 무언가 잘 해보고자 시작했던 순교자 현양대회 기념목주 판매 실적 이 너무나 부진한데서 좌절감마저 느낀 모양이다. 왜 이래야 하는가? 혹시라도 진행 과정에 잘못됨이 있다면 내일을 위해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사랑의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하지 않을까?

놀라운 일은 지난 27일 사목교서 연수회날 일어났다. 겨우 500여명의 교우에 제일 초라한 성전을 지닌 원평 본당에서 목주 200개를 가져간 것이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냥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경말씀이 이렇게 이루어 지는가?

순정이 산책



빠를수록 좋소!



가난한 사람들

김 환 철 신부

본 교구에서는 교회방송으로 군산 서해방송을 이용해 매일 밤(12시 15분경) 「사색의 오솔길」과 매일 1회 주일아침(7시 40분) 「생활종교」의 두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종교방송을 맡으시고 수고하시는 김환철 신부님의 원고로 지난 주일 방송되었던 생활종교 시간의 방송내용입니다. 교회방송의 관심을 기하고 묵상의 좋은 자료가 되겠기에 실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자 불철 주야 수고 하시는 분들의 충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人間은 누구나 앞날의 희망과 높은 理想을 갖고 살고자 하는 것이 人間의 본능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값진 희망을 높은 이상에 두었음을 망각하고 人間 相互間의 아귀다툼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을 깨뜨리는 터무니 없는 불화음을 가져오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설만한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에서 오는 빈부의 격차는 아름다운 발전의 선물을 크게 저해하여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조국의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우리의 슬기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잃었던 너와 나와의 우정, 고위층과 하위층과의 서로간의 존중, 많이 가진자와 적게 가진자와의 서로 서로의 협력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이제까지 가꾼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안가진 자보다 가진 자가 더 행복하고 낮은 자보다 높은 자가 더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에 속아서 살아 왔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비참은 인간이 하느님과 같이 높아져 보겠다는 착각에서 왔음을 우리 종교인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人間의 비참함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면서 자신을 人間으로 낮추시고 인간중에서도 대죄인의 취급 받기를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느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이브는 우리에게까지 축음을 가져왔지만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으로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많은 제왕들까지도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비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묻기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후세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때 예수님은 “네가 가진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에게 오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갑자기 얼굴에 슬픈 빛이 흘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없이 묵묵히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또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부모도 처자도, 유일한 생계의 도구인 고기배마저 남겨두고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최상권을 주었고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의 기초위에 세워졌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대로 사라졌을 따름이었지만 가난했으면서도 다 버리고 따라 나선 베드로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반드시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스러운 일에만 있지 않다는 교훈을 우리는 어데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79년도 노벨 평화(平和)상을 받은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라 불릴 만하다 테레사 수녀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 주셨습니다. “너희는 음식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무가복음 16장에 보면 가난한 자의 비유를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나자르라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 나자르를 보았을때 나자르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자 사람은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나는 기왕 이렇게 되었을 망정, 나자르를 세상에 보내어 살아있는 저의 형제 부모님에게 저와 같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곳으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때 하느님은 “아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려 주었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한다고 해서 알아 들었느냐” 하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토록 외쳤어도 오늘에 사는 우리 중에도 아랑곳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성경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지표가 되기도 남음이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창세 이후에 잘못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 왔고 가난한 자들의 외침을 들어 주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대변 해 주었습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가난 하면서도 진실되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성실되게 살면서 다가오는 80년대를 참된 삶으로 정진 해 나아 갑시다. (팔마성당 주임신부)

소비자 보호협회의 금상 획득!

한국 은수 보일러

난방·연탄보일러·기름보일러·공해방지

한국 流 은수 온돌 호남총판

이리 ㉠ 8629 ㉡4415 군산 ㉢ 1322

도 지정 40호 설비사

전주 지점 모집

크로레라一元?

- ★ 약 알카리성 특수 고단백 식물성 영양식품으로 여러분께 건강과 활력을 드립니다
- ★ C.G.F(성장발육 촉진인자)라고 하는 특수 물질이 들어 있어 스테미너 증강, 항균력 배양, 환자의 건강회복식, 허약 아동의 발육촉진, 여성의 피부미용에 좋은 약 알카리성 제질개선 식품으로 전국에 걸친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앞 T.3-2611

이리시 주현동 동사무소앞 T.2-7641

이 석 구(토마스 아퀴나스) 배상



80년도 사목교서 연수회 갖고 새 결의 다져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는 해인 1980년도의 사목교서 연수회가 지난 27일에 가톨릭센터에서 교구내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과거를 살아온 신앙의 증거자인 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되찾고 구체적인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룩된 구세사를 배우며 새로운 역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정화되어야 한다. 이에 교구장이신 김재덕 주교님은 "회개와 세신을 계속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 안에 구현"하고자 1980년을 「내적 쇄신의 해」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새해에는 ① 내적 쇄신과 복음의 생활화를 위한 신심교육이 강화되어 보다 적극적인 선교 대책이 모색될 것이며, 이를 위해 ② 제단체의 활성화와 조직사도직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③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구 교육 연구위원회>, <공소사목 연구위원회>,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재정비되어 밀도 있는 움직임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敎區 平協, 9일에 第5次 定期總會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敎區 平協, 회장 曹成浩) 제5차 정기총회가 오는 12월 9일(일) 가톨릭센터 회의실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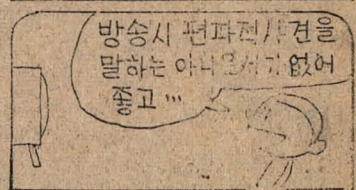
이번 총회는 임원개편 총회로, 앞으로 2년간 교구평협을 이끌어갈 새 임원 선거가 있다. 대개의 본당이 금년에 사도직 임원을 개편하는 시기여서, 이번 총회에는 새로 선출된 회장이나 재선된 회장이 참석하게 된다.

정기총회에 참석할 대상은 각 본당 사도회장과 교구단위 평신도 단체의 장(예: 레지오 마리에 코미시옹 단장)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나 다른 임원들이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도신부나 본당신부가 인정하는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총회에서는 임원개편외에도 79년도의 사업과 결산보고를 처리하고, 80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게 된다.

교구평협은 금년도에 몇차례의 교육(교구평협 주관 교육실시 및 전국평협 주최 교육 참가)을 통해 평신도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한바 있다. 또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교우들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 주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고, 교구의 기동성을 위해 뜻있는 교우들의 협조를 얻어 교구장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도운동 전개와 종합사무실 마련을 위한 순교자 현양대회 기념록주 판 매사업은 실패로 돌아가 이번 총회에서 그 해결책을 놓고 논란이 크게 일듯 하다.

인심이 (331) 김병오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사리오)

(이시계계열)

전화 ⑥ 6219

□남성의 멋을 드립니다

베드루네 집

(아카데미 백화점 A5호)

안철만(베드루)

*교우님들의 아낌에 감사드립니다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발지거)

☎ 2-3301 (자택 2-8548)

교우님들의 건강관리 상담

세종당한약방

김남수(벨라도)

전주시 풍남동 3가 35의9

(은행나무 사거리)

전화 ⑥ 2277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문화양행

오중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픽업차로 신속배달, 가정방문으로
점검, 교우님들 자주 찾아주세요

신진프로판까스상사

대표 최안드레아

전주시 진북동 친변도로

전화 ⑥ 5448 · ① 1071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자국·시계)

주이참수(바오로)

전주 남문열

전화 ⑥ 8188 (자 ⑥0369)



- **축! 순정이 찬강 7주년!!!**
1.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정기총회...12월9일(일) 오전10시부터, 가톨릭센터에서(공문 79-14호 참조)
※참가대상...① 각 분당 사도회장, ② 교구 단위 각 액션 단체의 장
 2. **음원문제 상담일**...4일(화) 오전10시~오후4시, 교구청에서
 3. **꾸르실로 임원 개편**...새출발을 축하하고, 한마음으로 나아갑시다!
□ 지도신부...오현택, 1지구-강인찬, 2지구-김환철, 6지구-한봉섭, 음악부-김동준신부
□ 주간...김영진, 총무부장-최남수(차장-이영자), 신심부장-남상룡(차장-박매리수), 행사부장-유기동(차장-이영희), 교수부장-정주복(차장-최상순), 조직부장-이주철(차장-신양순), 홍보부장-한상갑(차장-김희자), 음악부장-염규철(차장-장병순), 여성부장-김종열(차장-모든 여성 임원)
 4. **군산시내 합동 성령기도회**...5일(수) 저녁7시30분, 월명동성당에서
□ **순정이 편집에 도움이 되는 의견 기다립니다**...알고싶은 교리 등
□ **군인들을 위한 묵주성금**...여학생관 신자일동(1만6천원), 파티마 사도회장(1만원)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서 울 북
보좌 신부 보 왕 수
사도 회장 임 해
사도 회장 정 택
사도 회장 임 해

1. 새 고백성사 예식: 2일(일)부터 실행합니다
2. 프란치스코 3회 피정: 2일(일) 오전 9시
장소: 강당, 회비: 1,000원, 도시락 지참
3. 어머니 합창단: 6일(목) 오전 10시30분
4. 성심부녀회: 7일(금) 어머니미사 후
5. 물말초 공개 별: 12월 2일 오후 2시 강당
6. 여자 켈모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7. 사도회 총회: 12월 10일(월) 저녁 8시
장소-교리실, 사도회 임원, 교문, 구역장, 반장, 각 신심단체장,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79년도 결산, 80년도 예산, 사도회 임원선출

□ **지난주 불헌금: 259,090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보 좌 김
사도 회장 사 도 김
사도 회장 임 성
사도 회장 임 록

1. 사도회 임원 개편: 사도회장-박춘근, 부회장-이홍재·노인석, 선교부장-김종표, 전례부장-강병희, 봉사부장-박종걸, 재경부장-차동주, 간사-이대환·장성부, 이상 여러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2. 어머니합창단 월례회: 7일 어머니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3.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성령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반,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5. 학생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축! 혼인미사: 오늘 오전 11시 신랑-이동완(요한), 신부-양인승

□ **지난주 불헌금: 173,55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복
사도 회장 사 도 유
사도 회장 유 제 상

1. 미사시간에 늦지 맙시다
영성체 준비는 본인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2. 판공성사시 세대주 사진: 1매씩(중명) 준비하세요 주님과 약속을 이행합니다(교무금)
3. 판공일정
공소: 전미동(미산)-11월~12월, 전당리-14~15
분당: 17일~18일-금양동·송천동, 19~20일-덕진·팔복동
학생, 직장인은 16일과 22일 오전 오후
※ 성사시간은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6시
5. 어린이 교리반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교리-오후 2시, 미사-3시
6. 학생회 정기총회: 미사 후

□ **지난주 불헌금: 201,42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보 좌 박
사도 회장 사 도 박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및 반회장회의: 오늘 저녁미사 후 사도회임원 및 반회장님들 빠짐없이 나와주세요
2. 성우회 정기총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이갑진, 강기연 형제

(가정분)

3. 가정분 일정
12월 3일...다가동 1,2,3반: 반회장-염누리아, 이마리아, 신발바라, 4일...다가동 3가1,2가: 반회장-김애나·허트사, 5일...중앙동: 반회장-백테레사, 6일...교사동: 반회장-이다시애나·박엘리사벳·고혜레나, 7일...완산동: 반회장-강베로니카, 10일...화산동: 반회장-이누시아, 11일...태평동 1,2,3반: 반회장-최테레사·허테레사·최첼마, 12일...태평동 4,5,6,7반: 반회장-중누리아·신발바라·이글라라·일글라라, 13일...진북동 1,2,3,4반: 반회장-김마리아·유누리아·양바올라·김애나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반회장님들 자기반에 꼭 나오세요
4. 판공일정: 12월 15일-다가동·태평동, 16일-진북동·교사동·중앙동·기타, 17일-완산동·화산동

□ **지난주 불헌금: 236,16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사 도 활
사도 회장 활 인 구

- 사도회 임원은 다음주에 발표합니다
1. 애령회장: 조동근, 간사-강기호, 강순우, 윤성순
 2. 할머니회장: 윤성순, 간사-심금남
어머니회장: 윤애나, 간사-조규녀
 3. 사도회 월례회: 10시미사 후(신·구 임원)
 4. 수요기도회: 5일 밤 8시

□ **지난주 불헌금: 88,025원**

(순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사 도 이
사도 회장 강 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상임위원, 구역장, 반장님 참석바랍니다
2. 연말이 가까웠습니다: 밀린 불헌금 거년도 미수된 불헌금 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일학교 후원회: 4일 오후 2시 정자
4. 신축금 내주신 분
정철영(10만원), 이봉덕·김은택(각 5만원), 이영철(7만원), 최승님·오길선(각 3만원), 이장준(3만 5천원), 김보동(1만원), 복기남(2,500원)
5. 11월말분 유지비 결산누계: 수입-7,138,840원
현금잔액-4,433원 지출-7,134,407원

□ **지난주 불헌금: 166,63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업
보좌 신부 보 좌 김
사도 회장 사 도 김
사도 회장 유 석 종

1. 유아세례: 금일 9시미사 후
2. 사도회는 다음주 12월 9일로 연기함
3. 분당 주보축일행사: 공식미사후 간략하게 갖겠습니다
4. 클라라 형제회: 피정이 12월9일~10일에 있습니다
5. 레지오마리에 영혼진목회: 12월8일 오후 7시 성당에서 있어오니 단원과 협조단원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불헌금: 270,645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사 도 채
사도 회장 채 수 현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주일 저녁미사 후
2. 원죄없으신 모후 베르시디움 탄생: 주일 10시미사후
3. 가정발문: 화·수·목
4. 연말이 되는 달입니다: 불헌금을 완납합니다
5. 중·고 성가결연대회에 부녀회에서 수고하셨습니다

□ **지난주 불헌금: 71,325원 교무금: 44,000원**